

2018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 투자분석

백주현

1992년 소련의 붕괴로 15개의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자에 본격 나섰다. 이러한 투자들은 성공하였는가? 이 발표에서는 첫째, 그 성공의 원인은 무엇이고 실패한 경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우리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 해당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형성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의 투자환경은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바람직한 우리 기업 투자 결정과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주현은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다. 외무고시를 거쳐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자원외교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저서로는 '러시아가 뚫다'(경진 출판사, 2005) '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글로벌콘텐츠사, 2016)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한반도 재통일과정에서의 러시아 팩터'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12:00-13:00

장소: 아시아연구소 (101동) 303호